



이창호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뉴욕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기독교경영연구원 이사장, 한반도평화연구원 원장, 한류리더십학교 교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면,



Question 리더십학교를 통해 이루어 내신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Answer 학교의 설립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이며 우리의 미션은 '통일시대 사회지도자 양성입니다. 현재까지 졸업생을 458명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비전과 미션을 갖고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을 섬기며 예수님을 높이며 사회변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비전공동체입니다. 선후배 간에 계속 연락하며 서로 기도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개인의 삶만 바라보며 달려가느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모이는 단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통일시대를 준비한다는 비전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대를 준비한다는 비전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재능과 물질을 같이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75년도에 기도했던 것들이 점차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Question 리더십 학교를 이끄시면서 어려움을 느낀 때도 많았을 텐데 주로 어떤 문제였나요?

Answer 초창기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동역자를 찾지 못하고 재정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초창기 3년간은 많이 울었습니다. 리더십학교의 1년 예산이 2억 원 정도인데 여러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었지만, 학생들이 인솔해서 국외연수까지 가는 프로그램은 운영하려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요즘은 동문이 취업하면서 월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후원기관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초창기처럼 염려하며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와 비교를 하자면 교회는 교인들의 봉사, 달란트를 통해 교회사역을 하지만 우리는 재자를 교육하고 파송합니다. 교회는 목임이 주축인데 우리는 파송해서 흩어지는 공동체인지라 때로는 외롭고 힘들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졸업하고도 찾아오는 제자들이 큰 힘이 되고 위트가 됩니다.

Question 그동안 리더십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은 무엇입니까?

Answer 가장 큰 기쁨은 리더십학교 제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꽤 간절한 기도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 전에 리더십 학교의 모든 제자와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일까 생각해 봅니다. 교육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큰 보람은 사랑을 얻는 것입니다. 제일 큰 기쁨도 제자들이고 가장 큰 보람도 제자들이기에 행복합니다. 모든 교육자, 부회자, 사역자들은 사랑을 얻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랑을 얻었기에 너무나 행복하죠.

Question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Answer 리더십학교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공통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취업문제입니다. 대학까지 힘들게 공부하며 달려왔는데 막상 졸업하고 원하는 곳에 취업하지 못했을 때, 드물게는 1~2년씩 기다려야 하는 수많은 학생을 볼 때 가슴이 아픕니다. 더





하나님이 듣는 것처럼 들었고 보는 것처럼 보였고, 안타까워한 것처럼 안타까워했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곧 자기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란 현실 가운데 애통해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의 희생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대학, 청년들이 있다면 희생자들의 부르짖음과 이들의 안타까움이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에 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세계관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내 안타까워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불러내어 연결시켜 주는 운동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세계관 운동은 현장 속에서 찾아가고 만나는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짖고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유령, 아시아,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세대를 위해서 땅에 내려오시고 종의 모습으로 서셨고 죽기까지 복종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나 교회가 세상과 격리되어 있고 마음도 가진 것도 높아져만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 종이 되어 섬기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운동도 그러한 나아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성사회를 깨우는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기에 낮아지기를 어려워하는 것이 지성사회가 갖는 함정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요즘 청년들이 왜 공부하고, 돈을 벌고, 결혼해야 하는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시 스톱레스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쫓기는 인생을 살아왔기에 열심히 맘 흘리며 달려왔지만 왜 달리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나 많은 답음질로 나중에 허망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 목숨 걸고 달려가도 진혀 아깝지 않을 힘을 주는 하나님께서 일을 위 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뿐입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어떤 자리에 있는지 빛과 소금이며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SNS와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인데 그리스도인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디어이며 동시에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의 역할 그리고 세계관 운동 사역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비전과 목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고통 중인 수많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펼쳐야 합니다. 모세는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소리를

졸임생 인터뷰

QUESTION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나에게 한국리더십학교는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점이 도 움되었는지?



ANSWER **김소연(71)**: 석사 1학기 때 시작했는데 정체성이 자리잡혀야 할 시기에 교회에서만 자랐다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솔저리 문화부터 시작해서 직접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교회는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대학에서의 학문도 인본주의적인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도 답변을 해주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리더십학교를 통해 강의를 듣고 관련 내용으로 함께 토론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학업에만 매진했다면 주말에는 좀 더 기저적인 관점으로 앞으로 살아야 할 길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각을 정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학원보다는 리더십학교에서 배운 것이 더욱 도움되었습니다.



ANSWER **오승우(47)**: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신후배들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으며 11년째 리더십학교를 이끌고 계신 교장 선생님(이장로 교수)의 헌신하는 모습에서 모전을 받는다.

ANSWER **김성은(57)**: 핵심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입니다. 리더십학교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입학하는데 사회 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진 과거를 공유한 사람들이 입학했기에 이제까지의 신앙의 여정들이 공허하지 않았구나 하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에서는 각 동기들이 서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친교를 하고 기도하면서 현재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왔던 선배들, 강사님들을 만나면서 역할 모델을 삼아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장성연(71)**: 저는 학부, 석사 모두 경영학을 전공했고 군대를 포함하면 10년 가까이 학교에서 경제, 경영의 한 가지 관점에서만 세계를 보다가 리더십학교에서 다양한 학생,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세계관이 넓어졌습니다. 10년을 지나고 보니 공동의 세계관을 가진 후배들이 누적되면서 동문이 자기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시작되어 또 다른 공동체와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역이 시작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같아 좋습니다. 이장로 교수님은 리더십학교가 생기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학부 때에도 보면 리더십학교에 대한 비전이나 청년들을 키우고 싶은 꿈, 기독교 세계관으로 양성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리더십학교를 시작부터 하시는 과정도 보고 1기생으로 참여도 해보고 10년간 지속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밀고 나가시며 후배들을 양성하는 모습에서 하나의 큰 나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비전을 주는 사람으로서 꼭 심 있게 이루어가는 역할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QUESTION 교수님에 대해서는?

ANSWER **한유경(97)**: 저는 97인 데 수백 명의 동문이 있어서 내가 뭐 특별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같다는 느낌, 자기 자식처럼 대해주시고 따뜻한 눈빛으로 대해주시며 나를 펼쳐줄 생각에 주시는구나 싶어 울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고 감당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됩니다.